

# 의료계 빠진 의정협의체... 추석 전 출범 무산되나

### 협의체 추진 일주일째 헛바퀴...의료계, 내년 증원 백지화 요구 한동훈 '무제한 의제' 반응 없어...민주당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의정 협의체'가 11일에도 출범하지 못한 채 일주일 가까이 난항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트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게 당초 구상이었지만, 현 상태로는 추석 전 출범이 어려워졌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의료계가 빠진 채 협의체를 띄우는 '개문발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미 없는 대화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고, 여당 지도부 역시 정치권과 정부만 모여 논의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도 협의체 참여 자체에 대해서 통일되거나 일관된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전날 내년도 정원 문제는 물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까지 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한 것은 일단 의료계를 논의의 구조에 끌어들이는 제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 성격이다.

한 대표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일단 테이블에 앉자.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그래야 건강한 대화가 되고, 대화를 시작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한 대표의 '무제한 의제' 제안에도 아직 이렇다 할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도 박 차관 거취나 내년도 증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다루는 데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2025년도 정원은 조

정 불가"라며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한 대표의 뜻은 이해하겠지만,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된 만큼 협의체에서 그 사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표 측은 박 차관 거취와 관련해 "현 의료 사태의 정점에 있는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 아닌가"라고 지적한 반면, 원내 지도부나 용산에서는 '인사 문제는 논의'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한 대표 측은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선 당정의 의료 개혁 방향성에 공감하는 일부 의료단체 대표자들과 우선 협의체 구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 불안이 가장 큰 추석 연휴 응급실 문제부터 논의하는 모습이 필요한 만큼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과 먼저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하며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과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등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오는 12일에는 한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명절 대비 응급의료 대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여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 우원식 "‘쌍특검법’ 추석 후 처리하자"

###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야 단독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퇴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 수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징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전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가 조정할 2개 특검법안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다. 국민의힘은 안조위에서조차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두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등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여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일 이후 예정된 다음 본회의의 일자자는 26일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호남 뿔'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호남 뿔'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만간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주 의원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이다.

원의 인사인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



의원 출신이다.

또 민주당은 소속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를 확대·재편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한준호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대책위 내에는 박군택(광산갑) 법률위원장 등이 이끄는 '검찰 사건조사 정치 탄압 대책단'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끄는 '검찰개혁 제도개선 대책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국회의원-전남지사 '군공항 이전' 논의

### 19일 전남도청서 간담회...이전 조율 기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도를 찾아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1시 전남도청에서 '전남지사-광주지역 국회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간담회'를 연다.

광주에서는 양부남(서구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조인철(서구갑)·박군택(광산갑)·민형배(광산을) 의원, 김이강 서구청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도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6일 광주시청

에서 간담회를 열고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전 해법, 전남도·무안군 설득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 직후 양부남 위원장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날 것을 제안하고, 군 공항 이전과 관계된 서구·광산구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일정을 조율해서라도 꼭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광주지역 4명의 의원 외 다른 4명의 의원들은 국회 일정 등을 확인한 뒤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정진욱(동남갑) 의원은 전남도 간담회 당일 원내 회의가 있어 불참할 것으로 알려

졌다.

군 공항 이전 관계 지역인 서구와 광산구의 기초 자치단체장도 참석 의사를 밝혀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참여할 예정이며,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국회 일정이 있어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김산 무안군수에게도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다. 광주 의원들은 김 군수가 참석하지 못한다면 직접 무안군청을 찾아 김 군수를 만나겠다는 입장에 전달했다.

당초 광주시당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계획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간담회를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 간담회에서는 전남도·무안군의 입장을 전해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전남도·무안군의 입장을 듣고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